

자본과 국가권력의 반(反)노동자 정책을 넘어 단결과 연대로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 공급망 노동자 권리 보장

개요

- 제목: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금속노조-전미차노조 상호약속 체결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8일(화) 11시
- 장소: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 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장창열 위원장 발언
 - Timothy Sminth UAW 8지역본부 본부장 발언
 - 상호약속 취지 설명
 - 윤용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 발언
 -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발언
 - 상호약속 체결식
- 문의: 금속노조 국제국장 정혜원(010-2075-0862), 금속노조 정책국장 정유림(010-4964-2128)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KMWU)과 전미자동차노동조합(전미차노조, UAW)은 “글로벌 자동차산업 공급망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상호약속”을 체결합니다.
- 상호약속에는 첫째, 중첩된 위기와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직면한 전 세계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교류와 협력, 상호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교섭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례성과 △상대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자본의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 등을 공유하고 소통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 또한 담겨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속노조와 전미차 노조는 정부 또는 자본의 공격 시 서로 지원하며 매년 정례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자동차산업의 전환기, 자본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제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공급망 재편은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으로 몰고 갑니다. 이와 같은 시기 양 노동조합은 자본의 의도에 따라 분열과 반목에 머무르지 않고 단결하여 함께 싸우고, 협력하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 본 상호약속은 시작입니다. 단결과 연대, 조직 확대를 통해 금속노조와 UAW는 노동자 모두가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 것입니다.

※ 첨부 : 상호약속, 기자회견 발언 4, UAW 소개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장창열)은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종 전반과 판매, 서비스와 같은 유관 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단위 전국 단일 산별노동조합입니다. 2001년 2월 8일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걸쳐 19만 명의 조합원을 품은 한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는 14개 지역지부와 6개 기업지부로 구성되며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 및 노동 담당 기자는 메일링리스트 등록, 텔레그램 채널, kmwu.kr 금속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금속노동조합-전미자동차노동조합 상호약속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19만 명과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의 100만 명 이상의 재직 및 퇴직 조합원을 대표하여, 양 노동조합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서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 공동인식

전 세계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은 세 가지 상호 연결된 흐름에 의해 주도되는 중첩된 위기와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반(反)노동자적 정책 - 노동자들을 상호 경쟁 구도로 몰아넣으며, 글로벌 '하향 평준화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 자동차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 전기차 전환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인한 교통 산업의 구조적 변화 - 글로벌 자본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는 첨단 자동차 산업을 자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한 국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전후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급속한 붕괴 - 이는 부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의해 주도되며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동시적인 혼란과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재편은 변화하는 무역 질서, 심화되는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국가 산업 전략의 실행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자본은 이에 대응하여 구조조정을 하고, 생산기지를 이전하며, 새로운 제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기일수록, 노동조합은 국경을 넘어 교류, 협력,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전미자동차노동조합 협력 및 상호 지원

-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정례적인 소통 체계를 수립한다.
 - 교섭 전략 및 그 결과와 관련된 노조 소식 공유
 -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정부 산업, 노동정책 변화 공유
 - 자동차 산업 및 공급망에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협력 및 사례와 성과 공유
 - 상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 또는 경영 전략상의 변화 인지 시 관련 정보 공유
- 정부 및 자본의 노동조합·노동자 공격 시 상호 지원을 결의한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은 매년 정례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및 연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2025년 7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 창 열



전미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손 페인

UAW - KMWU MOU for Securing Workers' Rights in the Global Automotive Industry Supply Chain

On behalf of 190,000 members of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KMWU) and the more than one million active and retired members of the United Auto Workers Union (UAW), the two unions commit to work in close partnership to advance workers' rights in the global automotive industry supply chain.

○ Common Understanding

Workers in the global automotive industry are facing a period of overlapping crises and deep uncertainty, primarily driven by three interconnected forces:

- The expansion of anti-worker policies worldwide - pitting workers against each other in a global race to the bottom, while generating enormous profits for auto companies; and
- A systemic change in transportation driven by the electrification of the powertrain and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 global capital is scaling up investments, whil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promoting domestic investment to foster advanced automotive industries within their own borders; and
- A rapid breakdown of the post-war neo-liberal world order - driven, in part,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ies - is leading to the simultaneous disruption and restructuring of the global automotive supply chain. This reorganization is accelerated by a changing trade order, deepening geopolitical tens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industrial strategies

Capital has responded by restructuring, shifting production, and creating new alliances. In these uncertain times, labor unions should strengthen exchange, cooperation, mutual aid, and solidarity across borders.

○ UAW-KMWU Cooperation and Mutual Support

- Establish regular communication to share information on the following matters:
 - Sharing union updates related to bargaining strategies and outcomes
 - Sharing changes in government industrial and labor policies shaped by union activities
 - Cooperation for, and sharing of cases and results of organizing unorganized workers in the auto industry and supply chain
 - Sharing relevant information when either union becomes aware of major business decisions or strategic changes likely to affect the other unions' members
- We pledge mutual support in the event of attacks on unions or workers by government or capital.
- The UAW and KMWU will meet annually to assess and advance our cooperation and solidarity.

July 8th, 2025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ue ink, appearing to read "Shawn Fain".

Shawn Fain
President, UAW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ue ink, appearing to read "Jang Chang-yeal".

Jang, Chang-yeal
President, KMWU

발언 1.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장창열입니다. 금속노조와 UAW의 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상호 약속을 만들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My name is JANG, Chang-yeal, the President of the KMWU. I am quite pleased to announce the conclusion of a mutual commitment that will qualitatively adv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MWU and the UAW.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동맹이라고들 얘기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견고한 군사적 동맹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한미 FTA 체결 이후 무역량이 증가하는 등 경제 관계도 한층 긴밀해졌습니다.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often referred to as allies. Since the Korean War, a strong military alliance has continued to this day, and following the KOR-US FTA, trade volumes between our nations have increased, deepening our economic ties.

그런데 이러한 동맹은 본질적으로 자본을 위한 관계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는데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자본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게 이 동맹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However, this so-called alliance is a relationship fundamentally built to serve capital. Its true nature lies in eliminating threats to capitalism and ensuring stable profits for capital.

이 같은 자본을 위한 동맹 관계 변화가 특정 국가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반대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도 자본의 이해관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Such capital-centered alliances can benefit or harm workers in specific countries. As a result, workers are sometimes seen aligning with the interests of capital.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은 산업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노동조합을 뭐 하러 만나는 거냐는 의문이 금속노조 내부에 없지 않았습니다.

To be honest, there are some within our own union who question why we should meet with American labor unions at a time when US tariff policies, framed as part of a domestic manufacturing revival, are fueling concerns of deindustrialization in Korea.

한국의 친자본 언론들은 산업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노동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이 약화되고 투쟁 의지가 위축되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Korea's pro-business media are raising their voices, saying labor must make concessions to prevent deindustrialization and protect jobs. This has created the conditions that weaken labor unity and diminish the will to fight.

그런데 미국 관세 정책이 한국 산업 일자리 위기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핵심 원인은 아닙니다. 미국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은 더 값싼 노동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생산·판매를 위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While US tariff policies may factor in and contribute to Korea's industrial and jobs crisis, they are not the root cause. Even before these policies were set in motion, the major conglomerates of South Korea's export economy were already in the process of spreading out across the globe, seeking ever cheaper labor and more efficient production and sales.

아울러 자본은 언제나 노동자가 일자리나 노동조건을 두고 서로 경쟁하거나 반목하길 바라 왔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착취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노동자를 끊임없는 경쟁의 굴레로 밀어 넣는 자본에 맞서, 연대로 승리해 온 것이 전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Capital has always sought to pit workers against one another for jobs and working conditions - because it enables even deeper exploitation. Yet history has shown us that labor movements across the world have achieved victories through solidarity, standing up to the very capital that would entrap workers in the yoke of endless competition.

그래서 오늘 양 조직의 상호 약속은 매우 의미가 큼니다. 노동자는 어느 일방이 아닌 모두가 이기는 투쟁을 만들어야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진리가 상호 약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this mutual commitment between our two unions today holds great meaning. It embodies the truth that real victory can only be achieved when workers pursue a struggle in which no one is sacrificed and all of us win.

오늘 맺은 상호 약속이 금속노조와 UAW 간의 연대뿐 아니라 전세계 노동자의 연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본만을 위한 동맹관계를 허물어뜨리고, 전세계 모든 노동자가 평등·평화를 누리기 위한 연대를 형성하는 양 조직이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May the commitment we forge today not only strengthen the solidarity between the KMWU and the UAW, but also serve as a catalyst for global labor solidarity. Let our two organizations pave the way forward, dismantling alliances built solely for capital, and instead build a solidarity that ensures equality and peace for all workers everywhere. Thank you.

발언 2. 전미자동차노동조합 8지역본부장 티모시 스미스

My name is Tim Smith. I'm a UAW Regional Director and serve on our International Executive Board.

저는 팀 스미스입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지역본부장이자 UAW의 전미집행위원입니다.

I'm proud to be here. I'm proud to represent more than one million active and retired UAW members across the United States.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전역의 100만 명이 넘는 UAW 재직 및 퇴직 조합원을 대표해 왔습니다.

I came a long way—across the Pacific—with a team from the UAW to stand with KMWU. Together, we're announcing a new agreement.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저는 UAW 대표단과 함께 멀리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양 노조의 새로운 약속인 상호약속(MOU)을 발표합니다.

It's a commitment between our two unions. A step forward. A shared fight.

이 상호약속은 두 노동조합 사이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며, 함께 투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We're here because workers are under attack. Across the global auto industry. Across the global supply chain. And especially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where I organize.

우리가 여기에 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산업 곳곳에서, 공급망 곳곳에서, 그리고 특히 제가 조직하고 있는 미국 남부에서 노동자들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Big companies from South Korea, Japan, Germany, and Sweden have built non-union plants in the South. They came here for one reason: to keep unions out and wages low.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의 거대 기업들은 미국 남부에 와서 무노조 공장을 세워 왔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임금을 억누르기 위해서입니다.

I've seen it firsthand. I've seen the exploitation. I've seen the fear. I've seen what happens when workers don't have a voice.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착취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노동자도 보았습니다. 노동자

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처한 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But I' ve also seen courage. Last year, thousands of brave workers at Volkswagen in Chattanooga, Tennessee stood up.

하지만 저는 용기도 보았습니다. 지난해,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폭스바겐 공장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일 어났습니다.

They voted to join the UAW. And now, they 're fighting for a union contract—for dignity, for respect, and for a better future.

이 노동자들은 투표를 통해 UAW 가입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체협약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 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존엄을 위한, 존중을 위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투쟁입니다.

That' s what this is about. Dignity. Respect. A better future.

바로 이것이 우리의 투쟁입니다. 존엄과 존중, 그리고 더 나은 미래.

We know the auto industry is changing. We know the shift to electric vehicles is already underway.

우리는 자동차산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It' s moving fast. And companies and governments are pouring in money—billions of dollars.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기업과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But we can' t let this be a race to the bottom. We can' t let companies get rich while workers fall behind. We can' t let executives and shareholders cash in while families struggle to get by.

그렇다고 이런 전환 때문에 우리 노동자가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부를 축 적하고, 노동자는 뒤처지며 밀려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경영진과 주주들이 현찰을 챙기는 동안, 노동자 가족이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생계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For too long, we' ve seen the gap grow. The rich get richer. Workers fall further behind.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격차가 커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노동자는 점점 더 뒤로 밀려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The rules are rigged. Corporations chase cheap labor. They cut corners. They break unions. They ignore the planet. They ignore the people.

이 게임의 규칙은 처음부터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기업은 값싼 노동만 찾아 이동합니다. 편법을 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파괴합니다. 이들은 지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면합니다.

We' re here to say: enough.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멈춰야 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Enough corporate greed. Enough government silence. Enough divide and conquer.

기업의 탐욕은 멈추어야 합니다. 정부의 침묵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과 지배의 전략도 이제 멈춰야 합니다.

That' s why we' re joining forces.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칩니다.

That' s why the UAW and KMWU are committing to work together.

그래서 저희 UAW는 금속노조와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We' re building solidarity. We' re sharing strategies. We' re organizing together. We' re standing up for the working class—across borders, across oceans, across the world.

우리는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전략을 공유하며, 함께 조직하고, 국경과 바다를 넘어,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을 위해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We know what it takes. We saw it during the UAW' s Stand-Up Strike in 2023.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2023년, UAW의 스탠드업(Stand-Up) 파업에서 우리는 그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That strike made history. It showed what workers can do when we fight together. And we' re not done.

이 파업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할 때 무엇을 쟁취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UAW President Shawn Fain has called for a global general strike on May Day, 2028. To build worker power.

UAW 손 페인 위원장은 2028년 노동절, 전 세계 총파업을 제안했습니다. 노동자의 힘을 조직하는 총파업이 될 것입니다.

To demand a seat at the table. To show that labor can lead—not just in the workplace, but in shaping our future.

우리는 이 파업을 통해 노동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그저 일터의 주체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We won't get there alone. We'll get there with partners. With allies. With unions like the KMWU. That's what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all about. It says we will:

- Share bargaining strategies.
- Organize non-union workers in the supply chain.
- Push for trade and labor policies that center workers.
- Alert each others to major business changes that affect our members.
- Pledge mutual support in the event of attacks on unions of workers by government or capital.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조합과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상호약속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약속합니다.

- 교섭 전략을 공유할 것입니다.
- 공급망에서 미조직 노동자를 함께 조직할 것입니다.
- 노동자 중심의 무역, 노동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 조합원에게 영향을 주는 주요한 경영상의 변화를 서로에게 알릴 것입니다.
- 정부나 자본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공격할 때 상호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This is just the beginning. The UAW is proud to stand with KMWU. Proud to fight for a fairer global economy. An economy that works for workers. For families. For communities. Thank you.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UAW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연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가족, 공동체를 위한 더 공정한 세계 경제를 위해 투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 윤용신

지속적인 국제적 연대를 위하여 방한해 준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티모시 스미스 지역 본부장님, 제이슨 웨이드 수석보좌관님, 크리스 브룩스 비서실장님, 크리스틴 피터 국제실장님, 기쁘게 환영합니다.

I would lik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Regional Director Timothy Smith, Top Advisor Jason Wade, Chief of Staff Chris Brooks,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Christine Peter of the United Auto Workers (UAW), who have traveled to Korea to deepen and continue our international solidarity.

한국지엠지부는 지엠과 오랜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70년 당시 지엠과 합작사였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기였습니다. 이때 55년 전, 대한민국 노동사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지엠지부는 지엠을 상대로 주 44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어 내기도 했습니다.

The KMWU GM Korea Branch has a long and deep history with General Motors. In 1970, when GM entered into a joint venture in Korea, our union was founded. It was 55 years ago when,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labor in Korea, our union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GM to reduce the standard workweek to 44 hours and improve harsh working conditions.

1992년 지엠과 22년간 합작을 청산하고 1997년 한국경제위기 IMF 과정에서 2002년 지엠은 다시 한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단독 인수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GMK입니다. 지엠과 인연은 이렇게 특별합니다.

In 1992, the joint venture with GM was dissolved after 22 years, and during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GM once again acquired and began sole management of its automotive operations in Korea in 2002. This is the GM Korea (GMK) that we know today. Our relationship with GM is, in this way, a truly unique and enduring one.

한국지엠지부와 UAW는 서로 협력 관계 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UAW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While the KMWU GM Korea Branch and the UAW are independent organizations, we are also partners in collaboration. We share a common mission: to protect and advanc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자동차 산업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 공급망 노동자가 있어야 하고 완성차를 만드는 노동자도 있어야 합니다.

To stand against the increasingly fierce global competition in the automotive industry, we must build solidarity across the supply chain. We must never lose sight of this: producing automobiles requires not only the labor of parts supply chain workers but also the labor of those who assemble the vehicles themselves.

오늘 ‘상호약속’ 을 통하여 각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사항을 상시 공유하며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협력도 구축되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대 강화를 통해 지속적 상호 협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With today’ s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 hope that both unions will establish mechanisms for sharing major decisions and information likely to affect the other union’ s members, providing diverse information, and building mutual cooperation in organizing workers. I also hope that our growing solidarity will lead to continued and sustained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unions.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였고 단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한국지엠지부를 방문해서 더 유익한 협업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Together, we can and we will. That is why we are here, and that is why we must stand united. Lastly,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again to the KMWU GM Korea Branch, as we continue our joint efforts and move forward together.

발언 4.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정준현

19세기 영국이 주도 하는 세계자본주의를 이끌었던 산업은 섬유산업이었고, 20세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를 이끌었던 산업은 자동차산업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산업 대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산업의 위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자동차산업을 포기한 국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의 전세계 노동운동이 자동차산업의 부침과 궤적을 같이 했다는 사실이 자동차산업의 위상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In the 19th century, the industry leading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under British hegemony was the textile industry. In the 20th century, it was the automotive industry under US leadership that drove global capitalism. As we enter the 21st century, much is said about a great transformation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 stature of the automotive industry has remained unchanged. It continues to generate the most employment and has a profound impact on national economies - indeed among OECD countries, no nation has ever abandoned its auto sector. The fact that the trajectory of the global labor movement over the past 100 years has mirrored the rise and fall of the automotive industry testifies to its enduring significance.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임금 격차와 소득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전 세계 노조조직률 16.8%라는 저조한 성적표가 남았습니다. 한국 13%, 미국 10%대 노조조직률로는 각각의 노동계급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The prevailing analysis is that the higher the unionization rate, the lower the wage gap and income inequality. However, the aftermath of the neoliberal onslaught has left us a global unionization rate at 16.8%. With union density in Korea standing at 13% and in the 10% range for the United States, we are far from adequately representing the working class in our countries.

세계적 수준에서 군사적 긴장의 강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산업재편, AI와 스마트팩토리 등의 급격한 기술 변화, 현지생산 강화와 공급망의 변화, 관세 등 새로운 무역장벽의 출현 등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권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Today workers in the automotive sector face worsening conditions amid heightened global military tensions, an energy transi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due to climate crisis, rapid technological change such as AI and smart factories, a shift toward localized production and supply chain realignment, and the emergence of new trade barriers such as tariffs.

오늘 전미자동차노조와 한국의 금속노조의 MOU체결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

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계급적 단결과 연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 is my sincere hope that today's sig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Auto Workers (UAW) and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KMWU) serves as a small but meaningful step toward overcoming these challenges. Furthermore, I hope this moment catalyzes greater international class solidarity and unity among manufacturing workers beyond the automotive sector. Thank you.

UAW 소개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위원장 손 페인)은 자동차, 항공우주, 농기계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1935년 설립된 UAW는 현재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걸쳐 40만 명이 넘는 현직 조합원과 58만 명 이상의 퇴직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600개가 넘는 지역지부(Local)에서 1,050개 고용주와 맺은 1,750건의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UAW는 현직 조합원과 퇴직 조합원이 함께하는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임금과 복지 향상, 사회 정의 실현, 국제 노동기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uaw.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